

2010년 9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결과

9월 CBSI 12.5p 상승한 62.6 기록

- 8.29대책 실제 효과 건설업체 기대에 크게 못 미친 듯 -

- 9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12.5p 상승한 62.6을 기록함.
 - 이로써 7, 8월 동안 2개월 연속 하락한 지수가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며, 지수는 지난 6월 수준(60.1)을 회복함.
 - 지수가 전월비 10.0p 이상 상승한 것은 2009년 3월(22.3p 상승) 이후 처음인데, 이는 통상적으로 건설 비수기인 혹서기를 지난 계절적 요인과 더불어 8.29 대책 시행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됨.
 - 그러나, 지수 자체가 기준선(100.0)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혹서기의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지수가 하락하기 직전인 6월 수준을 회복한 것에 그친 것으로 볼 때 8.29대책 시행이 지수 회복세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특히 전월 조사시 건설업체들은 9월 지수를 71.5로 전망했는데, 이번 조사시 9월 실적치가 이에 크게 못 미쳤음. 이는 8.29대책의 실제 효과가 건설업체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것을 의미함.
- 한편, 10월 CBSI 전망치는 9월 실적치 대비 5.0p 상승한 67.6을 기록했음.
 - 이는 건설기업들이 9월에 이어 10월에도 건설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것을 의미함.
 - 당분간 공공 수주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아파트 미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건설업체들의 유동성 압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8.29대책 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CBSI가 기준선에 근접하기까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9월 CBSI가 모두 상승함.

-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21.4p나 상승한 71.4를 기록함. 대형업체 지수는 지난 7, 8월 모두 중견업체에 비해서도 낮은 50.0을 기록하며 2008년 12월(46.2 기록)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9월에는 큰 폭으로 상승해 9월 지수 상승을 주도함.
- 중견업체 지수 역시 전월 대비 9.9p 상승한 69.2 기록해 지난 3월 (70.4) 수준을 회복함.
- 지난 8월 전월비 8.6p 하락한 39.7을 기록해 8월 지수 하락을 주도했던 중소기업 지수도 9월에는 전월 대비 5.1p 상승한 44.8을 기록함.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자재부문 수급이 다소 양호한 가운데, 자재비와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94.1, 95.9를 기록하며 다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건비 및 자재비 지수가 각각 89.8, 73.9를 기록하여 철강재 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자재비 상황이 아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는 81.9, 78.1을 기록해 자금관련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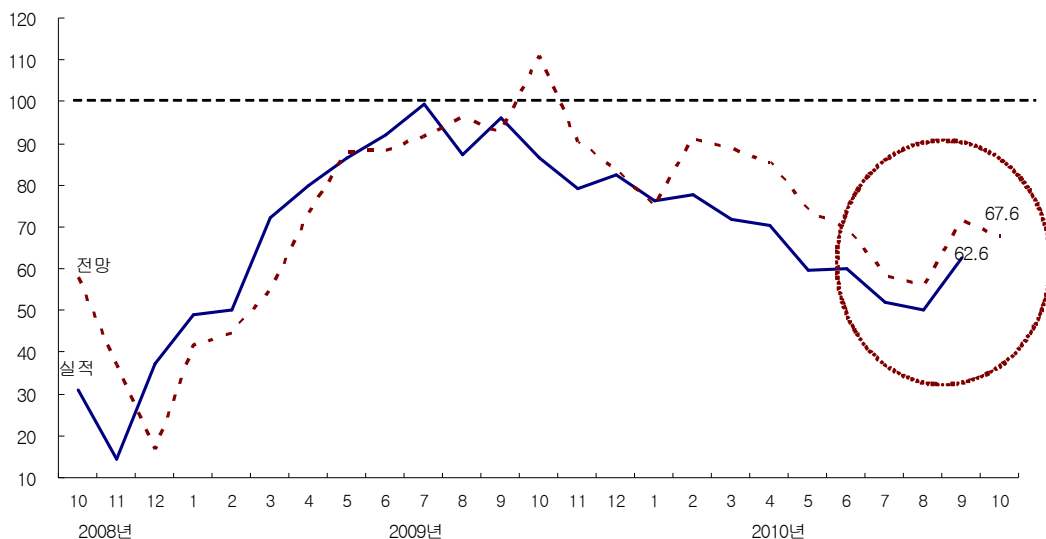
※ 본 보도자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2010년 9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9월 CBSI 12.5p 상승한 62.6 기록

- 9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12.5p 상승한 62.6을 기록함.
 - － 이로써 7, 8월 동안 2개월 연속 하락한 지수가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며, 지수는 지난 6월 수준(60.1)을 회복함.
 - － 지수가 전월비 10.0p 이상 상승한 것은 2009년 3월(22.3p 상승) 이후 처음인데, 이는 통상적으로 건설 비수기인 혹서기를 지난 계절적 요인과 더불어 8.29 대책 시행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됨.
 - － 그러나, 지수 자체가 기준선(100.0)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혹서기의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지수가 하락하기 직전인 6월 수준을 회복한 것에 그친 것으로 볼 때 8.29대책 시행이 지수 회복세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경기종합 BSI 추이 >



- － 특히 전월 조사시 건설업체들은 9월 지수를 71.5로 전망했는데, 이번 조사시 9월 실적치가 이에 크게 못 미쳤음. 이는 8.29대책의 실제 효과가 건설업체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것을 의미함.
- 한편, 10월 CBSI 전망치는 9월 실적치 대비 5.0p 상승한 67.6을 기록했음.
 - － 이는 건설기업들이 9월에 이어 10월에도 건설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것을 의미함.

- 당분간 공공 수주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아파트 미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건설업체들의 유동성압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8.29대책 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CBSI가 기준선에 근접하기까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업체규모별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업체규모에 관계없이 9월 CBSI가 모두 상승함.

< 규모별 · 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구 분		2009년 11월	12월	201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79.3	82.5	76.3	77.6	71.7	70.5	59.5	60.1	51.9	50.1	62.6	71.5	67.6
규모 별	대형	84.6	100.0	93.3	92.9	78.6	80.0	64.3	69.2	50.0	50.0	71.4	78.6	71.4
	중견	88.5	77.8	76.9	80.0	70.4	63.0	63.0	57.1	57.1	59.3	69.2	77.8	80.0
	중소	62.7	67.2	55.6	56.9	65.0	67.9	50.0	52.6	48.3	39.7	44.8	56.1	49.1
지역 별	서울	85.7	90.6	85.9	90.1	73.8	74.6	63.5	63.5	54.0	55.0	69.6	80.4	73.5
	지방	69.5	70.2	61.2	59.6	68.4	64.4	53.9	56.9	48.8	42.2	51.7	57.6	5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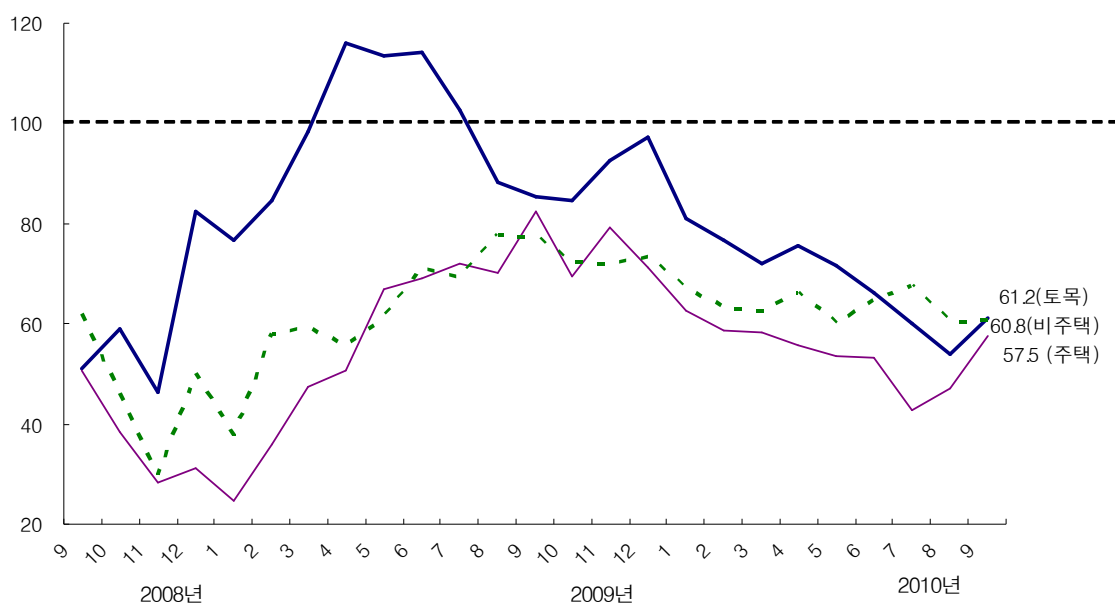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21.4p나 상승한 71.4를 기록함. 대형업체 지수는 지난 7, 8월 모두 중견업체에 비해서도 낮은 50.0을 기록하며 2008년 12월(46.2 기록)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9월에는 큰 폭으로 상승해 9월 지수 상승을 주도함.
 - 중견업체 지수 역시 전월 대비 9.9p 상승한 69.2 기록해 지난 3월 (70.4) 수준을 회복함.
 - 지난 8월 전월비 8.6p 하락한 39.7을 기록해 8월 지수 하락을 주도했던 중소기업 지수도 9월에는 전월 대비 5.1p 상승한 44.8을 기록함.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14.6p 증가, 지방업체는 전월 보다 9.5p 증가함.
- 서울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14.6p 증가한 69.6을 기록, 5개월만에 70선에 근접하였음. 공종별로 주택물량의 회복이 두드러졌으며, 자금사정 또한 8월보다는 다소 개선된 것으로 판단됨.
 - 지방업체 지수는 전월보다 9.5p 증가한 51.7를 기록함, 지난 5월부터 40선에서 50선 초반 대를 지속하고 있어 여전히 지방의 건설경기가 매우 부진한 상황인 것으로 보임.

공사 물량지수 주택과 토목물량의 증가로 전월 대비 11.2p 증가한 63.8 기록

- 9월 공사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11.2p 증가한 63.8 기록, 지난 7월과 8월 50선의 부진에서 반등한 모습을 보임.
 - － 여름철 비수기에서 벗어나는 계절적인 요인과 부동산 경기회복을 위한 8.29대책의 영향이 일부 작용한 결과로 판단됨. 그러나, 지수가 60선에 불과해 여전히 물량이 침체한 상황임.
- 공종별로는 토목이 전월보다 7.1p 증가하고 주택이 10.6p 증가하는 등 모든 공종에서 물량지수가 전월 대비 증가하였음.
 - － 토목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7.1p 증가한 61.2를 기록함. 지난 8월 54.1로 1년 8개월 사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데 따른 통계적 반등으로 보임.
 - － 주택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10.6p 증가한 57.5를 기록함. 타 공종들 보다 전월 대비 상승 폭이 큰 것으로 보아 8.29대책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긍정적인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여전히 50선에 불과해 타 공종들보다 물량침체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여겨짐.

< 공종별 공사물량 BSI 추이 >



- 비주택 물량지수 전월보다 0.4p 증가한 60.8을 기록함. 토목과 주택물량에 비해 전월 대비 증가폭이 미미했는데 이는 중건과 중소기업체들의 비주택 물량지수가 각각 전월보다 2.4p, 7.0p 증가한데 반해 대형업체의 비주택 물량지수가 7.2p 감소했기 때문임.
- 업체 규모별로는 대형이 71.4, 중건이 74.1, 중소가 43.1을 기록함. 전월대비로 비교해 보았을 경우 대형업체는 주택물량의 증가가, 중건업체는 토목물량의 증가가 두드러짐.
- 대형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14.3p 증가한 71.4를 기록, 한 달만에 다시 70선을 회복함. 토목과 주택물량지수가 각각 전월 대비 7.2p, 21.4p 증가한 64.5와 71.4를 기록함. 비주택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7.2p 감소한 71.4를 기록함.
- 중건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2.7p 증가한 74.1을 기록함. 토목물량지수가 전월보다 6.4p 증가한 73.1을 기록함, 비주택 물량지수도 전월보다 2.4p 증가했음. 다만, 주택물량 지수는 전월보다 1.5p 감소한 61.5를 기록함.
- 한편, 중소기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17.2p 증가한 43.1을 기록,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지난 8월(25.9)의 부진에서 반등한 모습을 보임. 전월 대비로는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으나 여전히 지수가 40선에 불가해 물량 상황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판단됨.

< 공사물량 BSI >

구 분		종합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건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63.8	71.4	74.1	43.1	70.9	52.5
	전망	67.1	61.5	88.5	49.1	71.3	60.1
토목	실적	61.2	64.3	73.1	44.1	66.2	53.3
	전망	71.2	71.4	92.0	47.4	77.6	61.5
주택	실적	57.5	71.4	61.5	36.5	68.8	39.4
	전망	61.3	78.6	64.0	38.0	73.6	42.1
비주택	실적	60.8	71.4	66.7	41.5	70.6	46.0
	전망	71.7	85.7	80.8	45.1	82.8	54.7

주 : 실적은 2010년 9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10월 예측지수임.

- 지역별로 서울과 지방업체의 모두 전월 대비 9.3p, 13.9p 증가하였음. 지방업체의 전월대비 물량증가가 두드러졌으나 지수 자체는 52.5에 불과해 여전히 지방의 물

량침체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9.3p 증가한 70.9를 기록, 한달만에 다시 70선을 회복함. 비주택물량 지수가 전월보다 0.5p 감소하였으나 토목과 주택물량 지수가 각각 5.2p, 12.1p 증가하였음.
- 지방업체도 전월보다 13.9 증가한 52.5를 기록함. 지난 8월 38.6으로 지수가 매우 부진한데 따른 통계적 반동의 영향으로 서울업체보다 전월 대비 높은 증가폭을 기록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지수 자체는 여전히 50선에 불과해 물량침체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10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9월 보다 3.3p 증가한 67.1로 9월보다는 물량상황이 다소 양호해 질 것으로 전망함. 공종별로는 비주택물량의 회복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임.
- 다만, 지수가 여전히 60선에 불과해 침체한 물량상황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토목 물량지수는 9월 실적치보다 10.0p 증가한 71.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이는 공공 토목공사 발주가 하반기 들어 소폭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주택 물량지수도 9월 실적치보다 3.8p 증가한 61.3으로 전망함. 지수상승폭이 그리 크지 않아 여전히 타 공종에 비해서 물량침체 상황이 심각할 것으로 보임.
- 비주택 물량지수는 9월보다 10.9 증가한 71.7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대형과 중견업체가 각각 9월보다 14.3p, 14.1p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 다소 양호한 가운데 자재비 상황 어려움 지속,
자금관련 상황도 어려움 지속**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자재부문 수급이 다소 양호한 가운데, 자재비와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94.1, 95.9를 기록하며 다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건비 및 자재비 지수가 각각 89.8, 73.9를 기록하여 철강재 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자재비 상황이 아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는 81.9, 78.1을 기록해 자금관련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자금 · 인력 · 자재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수금	실적	81.9	85.7	81.5	78.0	83.5	79.6
		전망	74.7	78.6	73.1	71.9	76.8	71.9
	자금조달	실적	78.1	85.7	77.8	69.5	80.1	74.7
		전망	74.3	85.7	69.2	66.7	77.2	69.5
인력	수급	실적	94.1	92.9	103.7	84.5	98.0	89.5
		전망	95.3	92.9	100.0	92.9	95.9	95.9
	인건비	실적	89.8	92.9	100.0	74.6	95.0	81.6
		전망	85.4	85.7	92.3	77.2	86.3	83.6
자재	수급	실적	95.9	100.0	92.6	94.9	99.5	90.4
		전망	97.4	100.0	92.3	100.0	99.4	94.3
	비용	실적	73.9	78.6	81.5	59.6	78.5	66.7
		전망	78.6	85.7	88.5	58.9	81.5	73.5

주 : 실적은 2010년 9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10월 예측지수임.

끝.